

정형외과학회소식

Newsletter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학회 운영 및 회원 공지 | 2021 제64차 정형외과 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공고 | 전문의 자격시험 논문
접수 규정 | 동양고전산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사례 | 지도전문 의 적용 논문 접수 및 대상
학회지 개정 안내 | JKOA 공지사항 | CIOS 공지사항 | 관련학회 및 국내학술행사 소식 | 모집공고 | 회원
동정 |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 기부금 고액 기부자 명단 | 회의실 대관 안내 | 질환별 팜플렛 발간 |
출간소식 | 허위진단서 근절 캠페인 포스터 안내

회장 김희중 · 이사장 조규정 · 총무이사 권대규



12

2020 December vol.370

beyond the Best

조인스®



연골성분 손실 억제¹⁻⁴⁾
(in vitro 및 in vivo)

안전성 프로파일의 확인⁵⁾

장기투여¹⁾ 자료 확보⁶⁾

풍부한 연구자료ⁱⁱ⁾

철저한 생산공정 관리ⁱⁱⁱ⁾

제품요약정보

전문약품

【제품명】 조인스정200mg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이 약 1정 중 조인스정 유효성분: 위령선-팔루근-하교초30%에탄올건조엑스(40→1)(별규) ...200mg **【효능·효과】** 골관절증(퇴행관절질환), 류마티스관절염의 증상 완화 **【용법·용량】** 성인 : 1회 1정을 1일 3회 경구투여한다.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감염상태 또는 감염의 원인이 있는 환자(감염에 대한 자체 저항력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감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처치를 취해야 한다.)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후락) **【제조사】** 에스케이케미칼(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149 **【판매자】** 에스케이케미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2011. 3. 21. 개정
※처방하시기 전 제품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십시오. 최신 허가사항에 대한 정보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1. Choi JH et al, Effects of SKI 306X, a new herbal agent, on proteoglycan degradation in cartilage explant culture and collagenase-induced rabbit osteoarthritis model., Osteoarthritis Cartilage, 2002 Jun;10(6):471-8, 2. Hartog A et al., The multicomponent phytopharmaceutical SK306X inhibits in vitro cartilage degradation and the product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Phytomedicine, 2008 May;15(5):313-20, 3. Lee SW et al., Clematis mandshurica protected to apoptosis of rat chondrocytes., J Ethnopharmacol, 2005 Oct 3;101(1-3):294-8, 4. Choi CH et al., SKI306X inhibition of glycosaminoglycan degradation in human cartilage involves down-regulation of cytokine-induced catabolic genes., Korean J Intern Med, 2014 Sep;29(5):647-55, 5. Jung YB et al., A four-week, randomized, double-blind trial of the efficacy and safety of SKI306X: a herbal anti-arthritis agent versus diclofenac in osteoarthritis of the knee., Am J Chin Med, 2004;32(2):291-301, 6. JoinsFinalReport_20051007(최종), Data on file, SK케미칼. [Updated 2005.10.07] 7. 조인스정 허가정보, 의약품안전나라 [Cited 2020.02.26] Available from: <https://nedrug.mfds.go.kr/>

i. 4년간의 시판후 조사결과 상 6개월 이상 장기투여(184명, 전체의 3.09%) 대상자 포함하였음.
ii. Pubmed SKI 306X 검색결과, 조인스로 진행된 연구 총 13건 [Cited 2020.02.17] Available from :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SKI+306X>,
iii. Certificate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 (2015.08), Daejeon Regional Commissioner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ontents

학회 운영 및 회원 공지	04
2021 제64차 정형외과 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공고	05
전문 의 자격시험 논문 점수 규정	06
동양고전산책	0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사례	12
지도전문의 적용 논문 점수 및 대상학회지 개정 안내	14
JKOA 공지사항	15
CIOS 공지사항	16
관련학회 및 국내학술행사 소식	21
모집공고	22
회원동정	24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24
기부금 고액 기부자 명단	25
회의실 대관 안내	25
질환별 팸플릿 발간	26
출간소식	27
허위진단서 근절 캠페인 포스터 안내	31

정형외과학회소식

2020 December vol.370 12월호



학회 운영 공지

1. 제64대 집행부 중점 사업

- 1) 추계학술대회의 국제학회화
- 2)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보완 및 다변화
- 3) 학생용 근골격계 통합 교육 교과서 편찬
- 4) 학회 홈페이지 개편
- 5) 온라인 교육센터 정착(E-Learning Platform)
- 6) 학회 소식지 활성화
- 7) 의료취약계층 척추 수술비 지원 사업

2. 각종위원회 및 TF 주요 업무보고

- 1) 학술위원회
제65차 춘계학술대회에 오리엔테이션, 골절술기 워크샵 등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함.
제65차 국제학술대회에서 자유연제를 100% 영문으로 구현하기로 함.
대한말초신경수술학회를 대한정형외과학회 관련학회로 인정하기로 함.
- 2) 산학협력특별위원회
2020년도 산·학·연·병 공동연구회 운영지원사업 결과보고
산학협력 심포지움과 1:1 파트너링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3) 대외협력위원회
의료취약계층 척추질환 수술비 지원사업관련 협조 요청
제65차 국제학술대회에서 정형외과 보험수가 관련 정책포럼 개최를 고려함.
- 4) 진단 및 장애위원회
보장구 연구회에 각 부위별 분과 위원을 위촉하기로함.
장애판정해설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의 출간 확정 및 홍보방안 제시함.

학회 회원 공지

1. 학회 홈페이지 메뉴 추가 안내

- 1) 지도전문의 이수증 출력 : 대한정형외과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 PAGE에서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증 출력이 가능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직접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2) 대한정형외과학회 임원 경력사항 출력 : 각종 위원회 기존 위원 또는 현직 위원께서는 MY PAGE-회원정보수정-이력관리 메뉴에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2. 학회 홈페이지 회원정보 업데이트 요청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회원님들께 중요 안내사항 등을 문자, 이메일 및 수령을 원하시는 주소로 발송하고 있으나 누락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회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홈페이지(www.koa.or.kr)에서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를 수정 요청 드리오니 로그인 하셔서 개인정보수정에서 회원님의 가장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바랍니다.

* 중요 업데이트 회원 정보

- 현재 소속병원
- 우편물 수신처
- 주소
- 이메일 주소
- 휴대전화번호

* 회원정보 수정은 홈페이지(www.koa.or.kr) 로그인 후 상단의 "MY PAGE"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매월 소식지에 안내되는 회원 동정란은 회원들의 경조사는 물론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소식을 게재하는 공간입니다. 소식 공지를 원하시는 경우 학회 이메일 ortho@koa.or.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본 학회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중이오니 관련 개편안 의견이 있는 회원은 ortho@ko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1 제64차 정형외과 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공고

[학회 서류 접수 및 교부 안내]

일시		장소
서류 접수 안내	추후 공지	학회 사무실 (용산구 한강대로372 센트레빌아스테리움 A동 604호-오피스텔동)
서류 교부 안내	추후 공지	

[시험 일시 및 합격자 발표]

시험 구분	시험 일시	합격자 발표일
1차 시험	2021년 2월 1일(월), 13:00	2021년 2월 4일(목), 14:00
2차 시험	2021년 2월 6일(토) ~ 7일(일)	2021년 2월 18일(목), 14:00

※ 1차 시험 장소는 **삼육대학교, 한국삼육중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에서 실시합니다.

※ 합격자 발표 및 확인은 대한의학회 홈페이지(http://www.kams.or.kr/), 전문의 자격시험 홈페이지(exam.kams.or.kr)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시험 안내 - 필기]

교시	시험시간	문제유형	문제 수	문제당 배점
1교시 (13:00~15:00)	120분	객관식	80문제	0.625점
휴식시간 (15:00~15:30)	30분			
2교시 (15:30~17:30)	120분	객관식	80문제	0.625
총계	240분		160문제	100점

[2차 시험 안내 - SBT 시험(사진, 영상), 구술]

시험 구분	시험 일시 및 장소
SBT 시험(사진, 영상)	2021년 2월 6일(토) 09:00~, 용산고등학교 본관
구술 시험	2021년 2월 6일(토) 13:00~ / 2021년 2월 7일(일) 09:00~, 용산고등학교 본관 (일자별 응시자 안내는 추후 공지)

※ 현재 2021년도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접수 일정이 미정으로 확정되는 즉시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십시오.(2020.12.15 기준)



전문의 자격시험 논문 점수 규정

규 정

-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 요건은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서류 접수 마감일시 이전까지**의 논문 점수가 최소 3점 이상이 되어야하며, **1편 이상은 대한정형외과학회지(JKOA)나 대한정형외과학회 영문학회지(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또는 SCI(E) 저널에 출간 또는 채택(accepted) 되어야 한다.**
단, 해당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응시자가 **속한 병원** 혹은 **속한 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작성된 논문이어야 한다.
여러 병원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적절한 심사를 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같은 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공동 연구는 제외)
※ Scopus 등재지(Asian Spine Journal, JBM(구, 골대사학회지), The Journal of Hand Surgery(Asian-Pacific Volume))는 SCI(E) 등재지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 1) **대한정형외과학회지(JKOA)와 대한정형외과학회 영문학회지(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그리고 SCI(E) 저널에 등재된 정형외과 관련 학술지는 3점이며 출간되거나 채택되면(accepted) 인정한다.**
※ 정형외과 관련 학술지가 아닌 SCI(E) 등재 학술지는 제1저자 또는 통신저자가 **응시 전공의와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 소속이고, 정형외과 관련 주제를 다룬 논문에 한해 3점 인정. 그 외 논문은 사안에 따라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함.
- 2) 분과학회지 및 관련학회지는 학술지의 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점수 인정한다.
①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는 2점: Hip and pelvis(구, 고관절 학회지), 골절, 스포츠의학, 척추, 족부족관절, 견주관절, 류마티스, 골다공증,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구, 슬관절학회지), Archives of hand microsurgery(대한수부-미세수술 통합학회지)
② 기타 관련 및 분과 학회지는 1점: 정형외과스포츠의학, 척추신기술학회, AOSM(대한관절경-대정스포츠의학회 통합영문학회지) 학회지이다.(기타 관련 및 분과 학회지가 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가 될 경우 2점 인정)
- 3) **증례보고(Case report) 및 증설(Review article)은 대한정형외과학회지(JKOA)와 대한정형외과학회 영문학회지(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SCI(E)에 발표된 경우는 1점을 인정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는 0.5점을 인정. 그 외의 분과 및 관련학회지는 인정하지 않음.**
- 4) 상기 점수는 필요에 따라서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회에서 분과 및 관련학회지의 질을 재평가하여 조정한다.
2. 대한정형외과학회 또는 관련학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 1편 이상을 발표하여야 한다.
3.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항과 2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4. 모든 논문에서 **전공의 3인까지만 인정하고 배정된 점수를 전공의 수로 나눈 점수를 인정한다.**

비 고

- 상기의 수정 보완된 사항은 **2021년도부터 시행되는 전문의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 ※ 전문의 자격시험 요건 중 논문은 대한정형외과학회지(JKOA), CIOS, SCI(E) 학술지는 채택(accepted)되거나 E-pub된 경우 발간(Printed publication)되지 않더라도 인정하고, 그 이외의 학술지는 발간된 경우만 인정한다.
 - ※ 대한정형외과학회지(JKOA)와 통합된 골관절종양, 골연부조직이식, 정형외과초음파, 정형외과컴퓨터수술, 정형외과통증, 정형외과연구, 관절경, 운동계측기세포재생의학회지는 대한정형외과학회지와 동일한 논문 점수로 인정한다. 통합 전 발간된 학회지의 논문 점수는 다음과 같다.
[통합 전 발간된 학회지 원저 논문 점수] 골관절종양 2점, 골연부조직이식 1점, 정형외과초음파 1점, 정형외과통증학회지 1점, 정형외과연구학회지 1점
 - ※ Archives of hand microsurgery(대한수부-미세수술 통합학회지)의 경우 통합 전 수부외과학회지와 미세수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통합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수부외과학회지: 원저 2점, 증례보고&증설 0.5점, 미세수술학회지: 원저 1점, 증례보고&증설 0점
 - ※ JBM(구, 골대사학회지)의 경우 2019년 SCOPUS 등재되어 2019년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 2점, 증례보고&증설 0.5점
 - ※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슬관절학회지)의 경우 2020년 5월에 등재되어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 2점, 증례보고&증설 0.5점
 - ※ The Journal of Hand Surgery(Asian-Pacific Volume)의 경우 2018년 SCOPUS 등재되어 2018년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 1점, 증례보고&증설 0점

2021년도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참고 문헌 안내

- | | |
|--|--|
| ① Gray's Anatomy (international student edition) | ④ Instructional Course Lecture (2018, 2019, 2020년에 발간된 대한정형외과학회 연수강좌 및 AAOS ICL) |
| ② Campbell's Operative Orthopedics (13판, 2016년 11월 출판) | ⑤ 정형외과학(교과서, 7판) |
| ③ Rockwood & Green's Fracture (8판, 2015년) | ⑥ 대한정형외과학회지, CIOS (2019, 2020년도 발간) |



동양고전산책(東洋古典散策)

김인권 (한국 한센복지협회 회장)
(용인 예스병원 병원장)

指鹿爲馬(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진왕정은 재위 26년인 39세에 통일을 이루었다. 그는 통일 후 자신의 업적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해 옛 전설상의 삼황과 오제의 칭호에서 한자씩 차용하여 황제로 칭하고 왕의 사후에 후계자와 신하들이 그 왕의 생전의 치적을 따져 정하는 **諡號制(시호제)**를 불경하다고 생각하여 시호제를 없애고 자신을 **始皇帝(시황제)**로 그리고 자신을 잇는 황제를 2세 3세로 호칭하여 **萬世(만세)**에 이르게 하라고 하였다.

시황은 **五行(오행)**에 의하여 **周(주)**나라는 **火德(화덕)**을 얻어 나라를 세웠고 **진왕조**는 **水德(수덕)**을 얻어 주의 화덕을 대체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바야흐로 수덕의 시대**가 개시되었으므로 엄격하고 가혹하게 통제하고 모든 일을 법에 따라 처결하여 일체의 자애로움과 은혜와 인정이 배제된 통치만이 오덕의 **命數(명수: 주어진 운)**인 수덕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법령이 준엄해졌으므로 백성들이 법을 어기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면이 되지 않았다.

승상 **王綰(왕관)**등이 건의하였다. '제후들이 이제 막 격파되었지만 연 제 초의 땅은 거리가 멀어 그 지역에 제후왕을 세우지 아니하면 제압하여 복종케 할 수가 없습니다. **皇子(황자)**들을 그 지역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청합니다.' 시황이 이 건의를 신하들에게 의논하게 하니 모두 유익하고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廷尉 李斯(정위 이사)**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주의 문왕과 무왕은 일족의 자제들에게 매우 많이 분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대로 내려와 관계가 소원해 지면서부터 마치 원수처럼 서로 공격하였으며 제후들이 서로 토벌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주의 천자는 이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황상폐하의 성덕으로 천하가 통일되고 전국에 군현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황자와 공신들에게 국가의 **賦稅(부세)**를 후하게 하사하신다면 그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제후들을 세우는 것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이에 시황이 말했다 '천하가 모두 끊임없는 전쟁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 것은 바로 제후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선조들의 신령들께서 보우해 주신 덕택으로 천하가 평정되었는데 다시 제후국을 세운다는 것은 전쟁의 불씨를 만드는 것이니 어찌 안녕과 평화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으랴! 정위 이사의 말이 옳다.' 그리고 천하를 **36郡(군)**으로 나누고 각 군마다 **守 尉 監(수 위 감)**을 두었다.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하고 천하의 병기를 거두어 함양에 모은 후에 이를 녹여 하나에 12만근이나 되는 **金人(금인)** 12개를 만들어 궁중에 두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도량형, 화폐, 문자를 통일하였다. 전국의 도로를 잇는 **輶道(치도: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를 만들고 수레의 폭과 바퀴를 통일하였다. 또 황제가 된 후 11년 동안 5차에 걸쳐 전국을 시찰하였다. 이때 제정된 여러 제도와 군현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통용되는 진시황의 위대한 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황 34년 통일 후 8년이 지나 나라가 태평하여 함양궁에서 주연을 베풀자 박사 70명이 나와 축수하였다. **周靑臣(주청신)**이 나와 찬양하는 말을 올렸다. '예전에 진의 땅은 천리에 불과하였으나 폐하의 탁월하신 능력과 밝은 성덕에 힘입어 천하를 평정하고 **蠻夷(만아:오랑캐)**들을 축출하시니 해와 달이 비치는 곳에 신하로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후국들을 군현으로

바꾸시니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히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으며 천하를 자손만대에 길이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고 이래 그 어떤 군주도 폐하의 위엄과 덕망을 따를 사람은 없습니다.’ 시황은 기뻐하였다. 제 출신 박사 순우월이 앞으로 나와 아뢰었다. ‘신이 듣건대 은왕조와 주왕조가 1 천 여년 간 천하를 다스리게 된 것은 종실의 자제들과 공신들을 제후로 봉하여 왕실을 보좌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온 천하를 차지하고 계시지만 종실의 자제들은 한낱 필부에 지나지 않습니다.왕실을 보좌할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처하면 어떻게 그 난국을 헤쳐 나가시렵니까?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옛 사람의 전례를 모범으로 삼지 않고서도 장구히 나라를 바르게 다스렸다는 말을 신은 여지껏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시황은 이러한 의견들을 신하들로 하여금 검토하고 의논케 하였다. 승상 이사가 아뢰었다. ‘五帝(오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가 서로 달랐으며 하 은 주 삼대도 서로 답습하지 아니하고 각기 독자적인 방법으로 천하를 다스렸습니다. 이는 서로의 정책을 싫어해서라기보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위대한 제국을 창업하시고 자손만대에 길이 빛날 공로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유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바입니다. 더욱이 순우월이 말한 것은 하 은 주 삼대의 옛일인데 어찌 본받을 만한 것이겠습니까?...지금 유생들은 새로운 이 시대의 것을 익히지 아니하고 옛것만을 배우고 익히면서 새로운 이 시대의 제도를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민중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유생들은 말끝마다 옛것을 들먹이며 현실을 비난하고 허튼 말을 그럴듯하게 꾸며대어 진실을 왜곡하였으며 사람마다 자신이 사사로이 배우고 익힌 지식을 가지고 조정에서 제정한 정책과 법령을 비난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금지시키지 아니하면 위로는 군주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아래로는 봉당이 형성될 것입니다. ..詩(시) 書(서) 제자백가의 저서를 태우고 감히 시 서를 들먹이며 왈가왈부 토론하는 자는 저자거리에서 처형하시고 옛 일을 들먹이며 현실을 비난하는 자는 그 일가족을 모두 몰살시키시기 바랍니다....불태우지 아니할 서적은 의약과 점복에 관한 책들 및 농업에 관한 책들이며 법령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리를 스승으로 삼게 하십시오.’ 라고 하여 시황의 재가를 받았다. (焚書:분서)

시황은 신선의 仙藥(선약)과 불로장생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었다. 옛 제나라 땅의 徐市(서불)등은 바다 속에 三神山(삼신산)이 있는데 그곳에 신선들이 살고 있으니 齋戒(재계)한 후 동남동녀를 데리고 신선을 찾으러 가게 해 달라고 간청하여 그렇게 허락하였다. 또 한종 후궁 석생을 파견하여 신선을 찾아 장생 불사약을 구해 오도록 하였다. 연 출신 盧生(노생)을 파견하여 羨門(선문)과 高誓(고서)라는 신선을 찾아 보도록 하였다. 신선을 찾아 장생 불사약을 구하러 나섰던 노생이 바다에서 돌아와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시황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예언서인 圖讖(도참)을 바쳤다. 그 도참에는 ‘胡(호:오랑개)가 진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秦亡者胡:진망자호)라고 써어있었다. 그래서 시황은 장군 蒙恬(몽염)으로 하여금 군사 30만을 이끌고 북방 호인들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요새와 장성을 쌓게 하였다.

盧生(노생)과 侯生(후생)이 서로 의론하였다. ‘시황이란 위인은 천성이 고집이 세고 자기 멋 대로라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제후출신으로 천하를 합병하여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되니 옛날이든 지금이든 자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여긴다. 전적으로 獄吏(옥리: 형명학자, 형벌에 관한 일을 심리하던 벼슬아치)들을 임용하여 옥리들만 총애를 받고 있다. 박사가 70명이나 되지만 그저 수만 채우는 존재일 뿐 기용되지 않는다. 승상과 대신들은 이미 결정된 명령만 받고 모든 일을 황제에 의존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할 뿐이다. 황제는 무거운 형벌과 살육에 의존하여 권위를 세우려하니 천하의 사람들은 형벌이 두려워서 봉록과 작위만을 유지하려고 할뿐 누구하나 감히 나서 충성을 다하여 직간하는 자가 없다. ...’ 라고 하고 이내 도망쳐 버렸다. 시황은 그들이 약속한 선약을 구하지 못하고 도망쳐 버린 것에 대하여 진노했다. ‘나는 일찍이 천하의 쓸모없는 서적을 거두어 들어 모두 불살라 버렸다. 그렇지만 문학에 뛰어난 학자들과 방술사들을 모두 불러들여 관직에 임용한 것은 천하를 태평케 하고 방사로 하여금 전국 각처를 두루 돌아다니며 선약을 찾아 오도록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한중등은 떠난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며 서불등은 막대한 비용만 쓰며 끝내 선약을 찾아 오지 못한 채 부당하게 이득만 취하고 있다는 보고만 매일 귀가 따갑게 들린다. 내가 노생등을 매우 후하게 대접하였는데 지금 그들은 나를 비방하며 내가 부덕하다고 지껄이고 있고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있다.’ 이에 시황은 그 사람들을 모두 잡아 심문하여 그들이 서로 고발하자 460명을 파문어 죽였다.(坑儒:갱유)

이에 시황의 만아들 扶蘇(부소)가 간언하였다. ‘천하가 평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먼 변방의 사람들은 아직도 따르지 아니하고 있는데 시와 서를 외우며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유생들을 황상께서 무거운 형벌로 다스리시니 천하가 동요할 까

두렵습니다. 재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황은 노하여 장성축조를 위하여 上郡(상군)에 있는 몽염장군을 감독하라는 명분으로 북쪽으로 내 쫓다시피 보내었다.

시황 37년 50세에 5차 巡行(순행)에 나섰다. 좌승상 이사가 수행하고 우승상 馮去疾(풍거질)은 함양에 남아 지켰다. 시황의 총애를 받고 있던 막내아들 胡亥(호해)가 따라 갈 것을 간청하자 허락했다. 순행도중 병이 났다. 병이 점점 더 위중해 지자 ‘돌아와 나의 喪事(상사)에 참석하고 함양에 모여 상례를 거행하고 안장하라’는 내용의 옥새가 찍힌 친서를 공자 부소에게 보내게 하였다. 시황의 친서는 봉함되어 璽書(새서)의 업무를 보는 조고에게 전해졌고 친서를 보낼 사자에게 전해지기 전에 沙丘(사구)의 平晫(평대)에서 세상을 떠났다. 황제가 외지에서 죽었기 때문에 황자들 사이에 혹은 천하에 변란이 일어날까 두려운 나머지 이 사실을 숨기고 發喪(발상)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호해 조고 및 시황이 총애하던 환관 5-6명만이 알고 있었다. 조고는 예전에 호해에게 書法(서법)과 獄律(옥률) 및 法令(법령)을 가르쳤기 때문에 호해는 개인적으로 조고를 좋아했다. 조고는 자신을 싫어하는 부소보다 호해를 세우기를 원하여 승상 이사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였다. 조고의 제안에 승상 이사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였지만 이해득실로 끈질기게 설득하는 조고에게 결국 넘어가고 말았다. 조고는 공자 호해 및 승상 이사와 음모하여 공자 부소에게 보내는 시황의 조서를 뜯어 내용을 바꾼 후 승상 이사가 사구에서 시황의 조서를 받은 것처럼 꾸며 공자 호해를 태자로 세웠다. 또 공자 부소와 몽염장군에게 내리는 조서를 위조하여 죄상을 날낱이 열거하고 자살을 명하였다.

호해는 21세에 2세 황제가 되었다. 조고는 郎中丞(낭중령)이 되어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에 2세는 조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령을 공포하였다. 아울러 조고와 은밀히 의논하였다. ‘조정의 대신들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관리들의 힘은 아직도 강대하며 게다가 황자들은 틀림없이 나와 제위를 다투게 될 터인데 어찌하면 좋겠소?’ 이에 조고는 ‘선제의 대신들은 모두 여러 대에 걸쳐 명망이 높은 귀인들로서 오랫동안 대대로 공로를 쌓아온 명문출신들입니다. 이와 반면에 소신은 본래 빈천한 출신이온데 폐하께서 신을 사랑하시어 높은 지위에 임명하신 덕분에 공정의 일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대신들은 이를 못 마땅히 여겨 겉으로는 신에게 복종하는 척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고관들을 감찰하여 죄지는 자들을 죽인다면 위로는 온 천하에 위엄을 떨칠 수가 있으며 아래로는 눈에 가시처럼 보기 싫은 자들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文治(문치)를 숭상하는 시대가 아니라 武力(무력)으로 다스려야 할 시대입니다....’ 2세 황제는 이에 동의하여 즉시 대신들과 자신의 형들인 모든 황자들과 공주들을 처형하고 갖은 죄명을 씌워 측근의 미관말직의 관리들인 三郎(삼랑)까지 연루시켜 잇달아 체포하니 조정에는 사람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시황이 조성하다 그만 둔 아방궁을 다시 축조하였고 법을 점점 더 가혹하게 운영하였다.

변방을 수비하는 守卒(수졸) 陳勝(진승)등이 楚(초)땅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楚王(초왕)이 되었다. 산둥지방 각 군현의 젊은 장정들은 진 왕조 관리의 학정에 시달려 통한이 맺혀 있던 차에 이를 기회로 그 지방의 관리들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 진승에게 호응하여 서로 王侯(왕후)를 세운 후 연합하여 서쪽으로 계속 진격하면서 진 왕조를 정벌한다고 호언하였는데 그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陳勝(진승)은 陽城(양성) 사람이고 같이 반란을 일으킨 吳廣(오광)은 陽夏(양하) 사람이다. 2세 원년7월에, 이항 왼쪽에 사는 장정들을 징발하여 어양을 지키게 하려고 900명의 군사가 이동 중 大澤鄉(대택향)에 머물게 되었다. 진승과 오광도 차례가 되어 이 행렬에 들어 屯長(둔장)을 맡게 되었다. 이때 하늘에서 큰비가 내려 길이 막혀 갈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도착할 기한에 맞추어 갈수가 없게 되었다. 진나라 법은 군사가 도착할 기한을 어기면 모두 목을 베게 되어 있었다. 이에 진승과 오광은 ‘지금 도망쳐도 죽고, 큰일을 일으켜도 죽는다. 죽음을 기다리느니 나라를 만들다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王侯將相寧有種乎)’라고 모의했다. 그 후 武臣(무신)은 趙王(조왕)으로 魏咎(위구)는 魏王(위왕)으로 田儼(전담)은 齊王(제왕)으로 각각 자립하고 있었고 沛公(패공:유방)은 패현에서 군사를 일으켰으며 項梁(항량: 항우의 삼촌)은 회계군에서 기병하였다. 진승의 반란은 결국 진의 司馬欣(사마흔) 董翳(동예) 章邯(장한)등에 의하여 평정되고 말았다. 그러나 진승에 의하여 시작된 반란은 계속 번져가고 있었다.

2세는 조고의 독단에 맡기고 항상 깊은 궁궐에 칩거하였다. 그 후부터 공경들조차 황제를 만날 수가 없게 되었다. 반란군의

우리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불어나자 관중의 병사들을 징발하여 동쪽으로 반란군의 무리를 정벌하는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우승상 풍거질, 좌승상 이사 장군 풍겁등이 나서 '반란군의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게 된 데에는 병역 운송 및 건축의 노역이 고통스럽고 세금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잠시 아방궁의 축조 공사를 중지하시고 사방의 변방에 근무하는 병역과 운송의 요역을 줄이시기 바랍니다.'라고 건의 하였다. 그러나 2세는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진압하지 못한 죄를 이들에게 물어 옥리에게 넘겨 취조하게 하였다. 풍거질과 풍겁은 장군과 재상이 이런 모욕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자살하였다. 다만 이사는 자신이 진왕조에 끼친 공로를 생각하여 赦免(사면) 될 것으로 알고 자살하지 않았으나 조고의 모함으로 일족이 모두 살해되었다.

이사등 재상들이 살해당하자 '조고가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어 공을 세워도 처형되고 공을 세우지 못해도 처형될 것'이라는 의견에 그 견책이 두려운 사마흔 동예 장한은 항우에게 군대를 이끌고 항복하였다.

이제 반란군이 가까이 오고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두려워한 조고는 군신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아니할까 두려워 먼저 시험해 볼 생각으로 사슴 한 마리를 끌고 가 2세에게 바치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말입니다.' 2세가 웃으며 말했다. '승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요? 사슴을 말이라고 하니.' 2세가 주위에 있는 신하들에게 묻자 침묵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조고에게 아부하여 말이라고 대답하는 자도 있었으나 사슴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指鹿爲馬:지록위마) 그 후 조고는 사슴이라고 대답한 자들을 은밀히 법망에 걸어 처벌하였다. 그 후부터 군신은 모두 조고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조고는 여러차례에 걸쳐 관동의 도적은 두려워할게 없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진의 군대는 잇달아 패퇴하고 연 조 제 초 한 위가 모두 독립하여 스스로 왕이라 일컬으니 함곡관 동쪽은 대부분이 진왕조의 관리들을 배반하고 제후들에게 호응하였다. 또 항우는 거록성에서 그리고 패공은 무관을 격파하였다. 조고는 두려워 자기의 사위인 염락과 동생인 조성과 모의하였다. '황제는 간언을 듣지 않더니 이제 사태가 위급한 지경에 이르자 자신이 지은 죄를 우리 일가족에게 전가 하려고 한다. 나는 천자를 폐하고 공자 子嬰(자영)을 세우고자 한다.'라고 하고 사위인 염락을 시켜 2세를 겁박하여 2세가 된지 2년만에 자살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부소의 아들 자영을 황제가 아닌 진왕으로 세웠다. 자영은 계책을 써 조고와 그 일족을 죽이고 진왕이 되었으나 46일 만에 함양에 들어온 패공에게 항복하였다. 그 후 1개월이 지나 제후의 군대가 도착하자 항우는 함중국의 맹주로 자영과 진왕조의 황자 및 황족들을 살해하고 이어서 함양성을 궤멸하고 궁실을 불살라버렸다.

진시황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효공이래 통치의 기본이 되었던 刑名學(형명학)에 의한 엄격한 法治(법치)로 이룬 부국강병의 유산과 진시황의 개인적인 능력과 부지런함이 통일의 주체가 되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그는 통일 후 재위 11년 동안 5차에 걸친 순수는 그 후 어떤 지도자도 할 수 없었던 열정이다. 이에 여불위 위로 몽오 이사등 유능한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춘추이래 500년 동안 지속된 분열을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일단 통일을 이루고 난 뒤 너무 쉽게 와해되어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는 후세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능묘건설과 아방궁의 건설 그리고 만리장성의 축조로 백성들을 심하게 사역한 것이 진나라를 너무 쉽게 와해시킨 한 원인이라고 말한다. 즉 통일전의 백성들은 끝없는 전쟁으로 고통을 받아 이제 안녕과 휴식을 바란 것이 통일을 이루게 된 원동력이었음에도 백성들에게 휴식을 주지 못하고 계속하여 노역과 엄격한 법에 의한 처벌이 지속된 것이 쌓여서 진이 그토록 일찍 멸망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焚書坑儒(분서갱유) 역시 法家(법가)적인 것 외의 언로를 막아 정치의 국면이 경색되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고 진시황과 그 주위의 사람들의 독선과 독단으로는 백성을 안위할 수가 없었다. 함양에 입성한 유방은 이런 법가적인 폐단을 간파하여 무자비한 진나라의 모든 법을 없애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죄 값을 받는다'는 3장의 법만 약속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約法三章:약법삼장)

賈誼(가의)의 過秦論(과진론: 진나라의 허물에 대하여)에 의하면 '대개 합병 때는 힘과 속임수를 높이 치지만 안정된 뒤에는 균형을 맞추는 일이 귀중하다. 이는 얻는 방법과 지키는 방법이 다르다는 말이다. 진은 전국시대를 거쳐 천하의 왕이 되었음에도 방법을 바꾸지 않았고 정치도 개혁하지 않았으니 이는 취하고 지키는 방법을 달리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홀로 고립된 채 다스리려 하였으니 멸망이 서서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찾아 왔던 것이다.' 수 백년 동안 국력을 키워왔고 위대한 진시황이

나와 통일을 이루고 제도를 혁신적으로 정비한 진나라도 백성의 참 원하는 바를 무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자신의 판단이 제일 위대하다는 독단에 빠져 어렵게 이룬 통일의 위업을 지켜내지 못하였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메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로들과 의논하니 원로들은 개혁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또 자신의 또래들인 젊은 신하들과 상의 하니 백성들의 요구는 들어줄수록 점점 더 심한 것을 요구할 것이니 오히려 공권력으로 더 눌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르호보암은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족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라고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구약성서 역대하 10:4-16)

이스라엘은 이제 막 왕정이 되었으나 아직 족장들 협의체에 의한 영향력이 강하였다. 다윗의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 다윗이 물려준 부를 바탕으로 많은 토목공사와 사치를 하였으나 그의 말년에 이르자 재정이 어려워지고 백성들의 부담과 노역이 심하여져서 불만이 팽배하여졌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 족장들이 와서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개혁보다는 족장들의 불만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이전보다 더 심한 통제를 택하였고 그로 인해 국가가 분열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소위 독재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밀리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르호보암도 진의 2세인 호해도 버리지 못하여 파탄을 자초하였다.

송(宋)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다. 하루는 밭을 가는데 토끼 한 마리가 달려가더니 밭 가운데 있는 그루터기에 머리를 들이받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것을 본 농부는 토끼가 또 그렇게 달려와서 죽을 줄 알고 밭 갈던 쟁기를 집어던지고 그루터기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토끼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그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守株待兔:수주대토) 한비자의 五蠹(오두)에 나오는 글이다. 이는 곧 낡은 관습만을 고집하여 지키고, 새로운 시대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 말이다. 즉 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룬 뒤에는 그것을 유지하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는 뜻일 게다.

한비자를 존경하여 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서로 다른 접근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 같은 방식의 접근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흥망성쇠가 부단히 거듭되는 이유다. 당사자가 신중하고 끈기있게 접근하고 시대상황 또한 이에 부합하는 쪽으로 진행하면 성공하지만 시대상황이 재차 바뀌고 있는데도 성공을 거뒀을 때의 기존 방식을 고집하면 이내 패망한다. 그러나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춰 스스로를 유연하게 바꿀 줄 아는 지혜로운 자는 거의 없다. 타고난 성향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秦亡者胡(진망자호)라는 도참을 믿어 북쪽의 호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축조하여 호인의 침입은 막았으나 호인들을 막기 위한 장성 축조의 노역이 진을 망하게 한 원인이 되었으니 결국 진을 망하게 한 것은 호라고 할 수 있겠다. 또 사람들은 진망자호의 호는 북쪽의 호인을 뜻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황제 胡亥(호해)였다고 말한다.

진시황은 자신을 시황으로 그리고 2세 3세로 전해 만대에 이르도록 하라고 하였지만 통일 진왕조는 고작 3대 13년에 그치고 말았다. 그 일차적인 원인은 백성들의 바라는 바를 바로 읽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개혁을 하지 못한 호해에게 있고 또 큰 앞날을 내다 볼 능력이 없이 자신의 욕심으로 호해를 조정한 조고에 있다고 하겠다. 효공이 상앙의 형명학에 따른 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 결국 통일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지만 형명학으로 백성들을 오랫동안 쥐어짜기에는 문제가 많았던 것 같다. 지금도 사슴을 말이라고 오도하는 정치인이 많고 또 더러는 이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민심은 그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즉 민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토록 강한 진나라가 이렇게 쉽게 와해해 버리게 된다는 타당성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역사적 사실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사례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많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는 정형외과에 대한 의료중재원 감정사례를 대한정형외과학회 학회지에 연재함으로써 정형외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추간판절제술 후 혈종 발생, 혈종제거술 후 통증 및 하반신 마비 잔존

[사건개요]

요추 부위의 추간판절제술 후 혈종이 발생되었으며, 혈종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어 하반신마비 및 대소변 기능장애가 발생되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치료과정]

환자(여/61세)는 2018. 9. 26. 허리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3-4번 요추관협착증 및 요추간원판탈출증 진단 하 경과관찰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11. 31. 편측후궁절제술 후 양측 감압술 및 요추 3-4번 추간판절제술을 받음. 수술 후 15:10경 부터 하지마비 느낌 및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 받음.

지속적으로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약물을 통한 통증 조절 치료가 시행되었으며, 2019. 12. 3. MRI 검사에서 혈종 확인되어 혈종제거술을 받음.

혈종제거술 후 하지마비 증상과 함께 대소변 감각 저하증을 호소하여 시행된 항문 및 비뇨기과 검사 후 신경학적 방광 진단 하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음.

이후 타병원에서 흉추12번 불완전성 하반신마비 및 마미증후군(신경학적 방광 및 장 포함)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보행장애, 방광기능 저하 및 실변 증상 외 중증의 우울증 소견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

[분쟁 쟁점]

환자측 : 추간판절제술 후 극심한 통증과 마비 증상 호소에도 검사나 치료가 시행되지 않아 혈종을 늦게 발견하여 하반신 마비 및 대소변 기능장애가 발생되었다는 주장임.

병원측 : 추간판절제술 후 환자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과관찰을 하였으며,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되었을 때 MRI 검사 및 혈종제거술을 신속하게 시행함. 혈종과 하반신 마비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며, 혈종의 빠른 제거가 환자의 완전한 회복을 보장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함.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진단 및 추간판절제술의 적절성

환자는 피신청인병원 내원 당시 요통, 양측 엉치 부위의 통증 및 간헐적 파행을 호소하고 있었고, 수술 전 촬영된 2018. 10. 3. 요추부 MRI와 11. 30. 요추부 CT를 종합해 보면 제 3-4 요추간의 심한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되므로, 환자 상태에 대한 진

단 및 제 3-4 요추간 후방감압술 및 추간판제거술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2. 추간판절제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진료기록에서 수술 후 통증 및 마비에 대한 환자의 증상 호소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의료진의 진찰 및 회진에 대한 내용, 환자에 대한 신체검진에 관한 내용 및 영상학적 검사가 확인되지 않는바, 환자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이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3. 혈종제거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환자가 지속적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술 후 3일째 촬영한 영상에서 혈종 소견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혈종제거술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는바 2차 수술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 후 특이증상 호소가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4. 설명의 적절성

수술 전 수술의 이유와 목적, 방법, 시술자, 수술 시 출혈, 수술 후 감염, 신경 손상, 경막 손상, 혈종 발생 가능성, 재수술 가능성, 마취 및 전신 합병증에 대한 내용이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나. 인과관계

1. 혈종제거술 시행 원인

추간판절제술 이후인 2018. 12. 3. 촬영한 요추부 MRI에서 혈종에 의한 경막 압박 소견이 관찰되고 이로 인한 극심한 통증 및 마비 등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추간판절제술 후 발생한 혈종이 원인으로 사료됨.

2. 혈종제거술 시행시기가 예후에 미친 영향

신경압박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 있을 때 가능한 빨리 감압을 해주는 것이 신경손상 회복에 도움이 되므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될 때 빠른 검사 및 처치가 이루어졌다면 환자의 예후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다만, 수술 후 통증이 동반되는 것은 일반적이므로 혈종 및 마비 발생 시점을 정확히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현 상태의 원인

환자의 현재 상태는 추간판절제술 후 발생한 혈종의 신경압박에 의한 신경손상이 원인으로 사료됨. 불완전 마비 등 환자의 상태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도 완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하지마비 및 대소변 기능에 대한 재활치료 등이 필요 하리라 사료됨.

[조정결과]

현재 본 건은 감정 후 조정절차 진행 중임.

[예방 Tip]

- 척추 수술 후 마비가 없던 환자에게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 마비의 발생 이유가 수술과 관련된 경우에는 원인을 찾기가 쉽지만, 수술이 잘 되었는데도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 경과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음. 중재원의 감정사례에서 대소변 장애를 동반한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의 원인 중 하나로 수술 후 혈종으로 확인된 경우가 예상보다 많음. 따라서 수술 후 원인을 모르는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시간 내에 MRI 촬영을 시행하여 혈종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림.
- 경과관찰 미흡으로 발생하는 배상액은 악결과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후유장애의 상태에 따라 배상액은 커질 수 있음.



학회 지도전문의 자격 기준 중 지도전문의 적용 논문 점수 및 대상학회지 개정 안내

• 지도전문의 논문 점수 대상 학회지 및 배점

1. 대한정형외과학회지(통합된 학회지 포함) 및 정형외과영문학회지(CIOS), SCI(E), Scopus 논문 중 원저와 증설은 2점, 증례보고는 1점을 부여하고, 관련학회 학술지는 학술지의 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점수를 인정한다.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의 원저와 증설은 1점, 증례보고는 0.5점을 부여하며, 해당 학술지는 Hip and pelvis(구, 고관절 학회지), 골절, 스포츠의학, 척추, 족부족관절, Archives of hand microsurgery(대한수부-미세수술 통합학회지), 견주관절, 류마티스, Osteoporosis and sarcopenia(구, 골다공증학회지),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 (구, 슬관절학회지)이다.

2) 기타 관련 및 분과학회지의 원저와 증설은 0.5점, 증례보고는 0.25점을 부여하며, 해당 학술지는 척추신경학회, AOSM(대한관절경-대정스포츠의학회 통합영문학회지) 학회지이다.
(기타 관련 및 분과학회지가 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가 될 경우 1점을 인정한다.)

3) Scopus에 등재된 저널은 SCI(E)와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하다.
(Asian Spine Journal, JBM(구, 골대사학회지), The Journal of Hand Surgery(Asian-Pacific Volume))

4) SCI(E) 또는 Scopus에 등재되지 않는 해외학회지의 원저와 증설은 0.5점, 증례보고는 0.25점을 부여한다.

5) 정원책정 지도전문의는 당해 연도 1점 또는 직전 4년에 3점 이상의 논문 점수가 되어야 인정된다.

(1) 직전 4년 논문 점수 산출시 이미 사용하였던 논문은 중복되게 사용하지 못한다.

(2) 당해 연도란 전년도 3월 1일 ~ 해당 연도 2월 말까지를 말한다.

• 2020년도 당해 연도: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 2020년도 직전 4년: 2016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2. 대한정형외과학회지 및 대한정형외과 영문 학회지(CIOS), SCI(E)는 당해 연도 기간 내에 채택(accepted) 되거나 E-pub된 경우, 논문으로 인정한다.

3. 정형외과와 관련된 전문 서적 및 기타 학회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4. 제1저자 또는 통신저자는 전체 점수를 주고, 나머지 저자는 주어진 배점을 논문 작성자 수로 나눈 점수를 부여한다.

※ 통합 학회지의 논문 점수 인정에 관한 건

[JKOA와 통합 전 발간] 골관절종양학회지 1점

골연부조직이식학회지, 정형외과초음파학회지, 정형통증학회지, 정형외과연구학회지 0.5점

[JKOA와 통합 후 발간] 대한정형외과학회지와 동일한 점수로 인정

※ 통합학회 : 대한골관절종양학회,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대한정형통증학회, 대한정형외과 컴퓨터수술학회,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대한관절경학회, 대한운동계절기세포재생학회

※ Archives of hand microsurgery(대한수부-미세수술 통합학회지)의 경우 통합 전 수부외과학회지와 미세수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통합 전 발간된 논문 점수] - 대한수부외과학회지: 원저&증설 1점, 증례보고 0.5점

- 대한미세수술학회지: 원저&증설 0.5점, 증례보고 0.25점

※ SCOPUS 등재 시점에 따른 점수 안내

- JBM(구, 골대사학회지)의 경우 2019년 SCOPUS 등재되어 2019년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증설 1점, 증례보고 0.5점

- The Journal of Hand Surgery(Asian-Pacific Volume)의 경우 2018년 SCOPUS 등재되어 2018년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증설 0.5점, 증례보고 0점

-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의 경우 2020년 5월에 등재되어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증설 1점, 증례보고 0.5점



JKOA 공지사항

1. 대한정형외과학회지는 현재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학술지입니다.
2. 국문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는 영문으로 작성 된 논문은 투고를 받지 않습니다. 영문논문은 가급적 CIOS에 투고 부탁드립니다.
3. 국문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허가를 받은 심사완료된 논문은 저자변경이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4. 연구 윤리의 원칙에 저자됨은 실제 연구 및 논문 작성에 기여해야 하나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들 중에 실제 연구 및 논문 작성에 기여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수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저자들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저자수에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증례 보고에는 4명 이하(전공의 1인) 원저에는 6명 이하(전공의 2인까지) 증설에는 3인이하 제한된 수 이상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편집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들 등록된 저자 이외에 기여한 사람은 Acknowledgement에 넣습니다. 단, 다기관 공동 연구(Multi-center study) 등 상기 규정된 저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이 논문에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5. 원고 투고 시 저자고유식별 번호(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 입력은 필수사항입니다.
6.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투고한 동일한 내용의 연구물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타학회지에 중복해서 투고하는 것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 윤리규정 제1절 제3항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의 위반이므로 이런 경우에 징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7. 신속심사제도에 관하여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 심사는 정규 심사 과정이 기본이나 전문의 자격시험 기준 또는 지도전문의 자격기준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별하여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아래 안내와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심사제도는 선별적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며 "가급적 채택"이 아닙니다. 총 60일 이내의 심사 완료로 목표로 하지만 '수정 후 재투고' 판정 후에 재투고 기간이 늦어지면 60일 이내의 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재투고 판정시 투고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전문 자격시험 논문 기준의 사유로 신속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매년 8월 말까지만 신청을 접수 받고 진행을 하며 수정 후 재투고가 늦어져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정된 기한을 지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유일 경우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 꼭 양지하시고 가급적 정규 심사과정을 통하여 학회지 논문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속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정형외과학회 사무국에 전송(팩스 : 02-780-2767 또는 이메일 : ortho@koa.or.kr)하고 위원장의 타당성 승인 후 별도의 심사로 30만원을 학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속심사 시행이 심사위원의 논문 게재 허가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대한정형외과학회)

Editorial
대한정형외과학회지(JKOA)는 대한정형외과학회와 역사를 함께 한 대표 journal입니다. 아쉽게도 최근에는 기관별로 SCI(E)급 journal만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다 보니 대한정형외과 학회지(JKOA)의 위상이 이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본 학회지는 정형외과의 최신 지견을 접할 수 있는 믿음직한 한글 잡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독자에게 보다 유익한 내용을 전달하고 구독률과 인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3호부터는 Honorable Review Articles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Review Article은 여러 문헌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자의 경험에서 나온 가치 있는 메시지가 담겨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적합한 증설 게재를 위하여 대한정형외과학회지(JKOA)의 심사위원과 편집위원들로부터 각 분야에서 임상과 연구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저자와 주제를 추천받았습니다. 경험을 중시하여 학회 회원 중 55세 이상의 Senior 선생님들로 연령을 제한하여 추천받았으며 각 과별로 다수의 추천을 받으신 한 두 분께 증설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호에는 수부 분야에서 "수지 골절-탈구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강호정 교수님의 증설과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손과 손목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대하여 한양대학교 이광현 교수님의 증설을 게재하였습니다. 본 증설이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임상과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바쁜 시간을 쪼개어 귀한 메시지를 정리하여 주신 강호정 교수님과 이광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 Session을 통하여 유익한 증설을 게재할 예정이오니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대한정형외과학회지 편집위원회

CiOS 공지사항

※ 2018, 2019년 발간된 CiOS 논문을 인용한 2020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SCI(E) 논문 리스트입니다. 현재 인용지수는 1,921입니다.

※ CiOS 저널 SNS 홍보 게시 안내 : www.facebook.com/CiOSjournal, www.twitter.com/CiOSjournal

☞ List of 2020 SCI(E) Articles Citing CiOS

- 1) Effect of Pneumonia on All-cause Mortality after Elderly Hip Fracture: a Korean Nationwide Cohort Study.
J Korean Med Sci. 2020;35(2):e9. Published 2020 Jan 13. doi:10.3346/jkms.2020.35.e9 (을지대병원, 경상대병원)
- 2) Small Subchondral Drill Holes Improve Marrow Stimulation of Rotator Cuff Repair in a Rabbit Model of Chronic Rotator Cuff Tear.
Am J Sports Med. 2020;48(3):706-714. doi:10.1177/0363546519896350 (아산병원)
- 3) A retrospective comparative study of infection control rate and clinical outcome between open debridement using antibiotic-impregnated cement beads and a two-stage revision in acute periprosthetic knee joint infection.
Medicine (Baltimore). 2020;99(4):e18891.(서울대보라매병원)
- 4) The influence of spinopelvic morphologies on sagittal spinal alignment: an analysis of incidence angle of inflection points.
Eur Spine J. 2020;29(4):831-839. (한양대병원, 울산대병원)
- 5) Inter-segmental foot kinematics during gait in elderly females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hallux valgus [published online ahead of print, 2020 Mar 12].
J Orthop Res. 2020;10.1002/jor.24657. (분당차병원, 서울대병원)
- 6) Current role of handheld navigation system in total knee arthroplasty: where we are?
Ann Transl Med 2020;8(6):261. (현대병원)
- 7) Evaluation of Anterolateral Ligament Healing After Anatomic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Am J Sports Med. 2020;48(5):1078-1087. (건국대병원, 명지병원)
- 8) Prognoses of superficial soft tissue sarcoma: The importance of fascia-tumor relationship on MRI.
Eur J Surg Oncol. 2020;46(2):282-287. (서울대병원)
- 9)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for Dorsal Fracture-dislocation of the Proximal Interphalangeal Joint. Offene Reposition und interne Fixation dorsaler Luxationsfrakturen des proximalen Interphalangealgelenkes.
Handchir Mikrochir Plast Chir. 2020;52(1):18-24. (서울백병원, 분당차병원)
- 10) Comparison of proprioception between osteoarthritic and age-matched unaffected kne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ublished online ahead of print, 2020 Mar 30].
Arch Orthop Trauma Surg. 2020;10.1007/s00402-020-03418-2. (일산백병원, 삼성서울병원)
- 11) Arthroscopic gel-type autologous chondrocyte implantation presents histologic evidence of regenerating hyaline-like cartilage in the knee with articular cartilage defect.
Knee Surg Sports Traumatol Arthrosc. 2020;28(3):941-951.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 12) Recovery Pattern After Arthroscopic Treatment for Calcific Tendinitis of the Shoulder.
Orthop Traumatol Surg Res. 2020 Jun;106(4):687-691. (계명대동산의료원)
- 13) The Incidence and Risk Factors of Frozen Shoulder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Surgery.
Breast J 2020 Apr;26(4):825-828.(계명대동산의료원)
- 14) Patients Who Have Undergone Rotator Cuff Repair Experience Around 75% Functional Recovery at 6 Months After Surgery.
Knee Surg Sports Traumatol Arthrosc. 2020 Apr 29. (계명대동산의료원)

- 15) Adequate protection rather than knee flexion prevents popliteal vascular injury during high tibial osteotomy: analysis of three-dimensional knee models in relation to knee flexion and osteotomy techniques.
Knee Surg Sports Traumatol Arthrosc. 2020;28(5):1425-1435.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 16) Enhanced healing of rat calvarial defects with 3D printed calcium-deficient hydroxyapatite/collagen/bone morphogenetic protein 2 scaffolds.
J Mech Behav Biomed Mater. 2020;108:103782. (서울대병원, 서울대보라매병원)
- 17) The natural course of and risk factors for tear progression in conservatively treated full-thickness rotator cuff tears.
J Shoulder Elbow Surg. 2020;29(6):1168-1176. (서울대병원)
- 18) Differential MRI findings of transient synovitis of the hip in children when septic arthritis is suspected according to symptom duration.
J Pediatr Orthop B. 2020;29(3):297-303.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양대병원)
- 19) Opening gap width influences distal tibial rotation below the osteotomy site following open wedge high tibial osteotomy.
PLoS One. 2020;15(1):e0227969. (삼성서울병원)
- 20) Microfractures Versus a Porcine-Derived Collagen-Augmented Chondrogenesis Technique for Treating Knee Cartilage Defects: A Multicen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rthroscopy. 2020;36(6):1612-1624. (가톨릭서울성모병원)
- 21) Predictive factors for failure of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via the trans-tibial technique [published online ahead of print, 2020 Jun 11].
Arch Orthop Trauma Surg. 2020;10.1007/s00402-020-03483-7. (중앙대병원)
- 22)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Ramp Lesions Associated With Anterior Cruciate Ligament Injury.
Am J Sports Med. 2020;48(7):1673-1681. (강동경희대병원)
- 23) Being Underweight Is Associated with Worse Surgical Outcomes of Total Knee Arthroplasty Compared to Normal Body Mass Index in Elderly Patients.
Orthop Res Rev. 2020;12:53-60. (연세대세브란스병원)
- 24) Is Femoral Fracture Healing Really Compromised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Comparison Study Between Rheumatoid and Non-rheumatoid Arthritis Patients.
Indian J Orthop 2020. (한양대병원)
- 25) Clinical and radiological outcomes between biportal endoscopic decompression and microscopic decompression in lumbar spinal stenosis.
J Orthop Sci. 2020;25(3):371-378. (경북대병원, 부산함내라병원)
- 26) Value of cross-sectional area of median nerve by MRI in carpal tunnel syndrome.
Asian J Surg. 2020;43(6):654-659. (경상대병원)
- 27) Clinical outcomes of two-stage total knee arthroplasty using articulating cement spacer in patients with infected arthritic knee: A comparison with arthroscopic surgery.
Knee. 2020;27(2):444-450. (해운대부민병원, 부산백병원)
- 28) Acquisition of coronal alignment according to the degree of varus deformity in total knee arthroplasty using computer-assisted navigation.
J Orthop Surg (Hong Kong). 2020;28(2):2309499020926268. (대구가톨릭대병원)
- 29) Discrepancy between true ankle dorsiflexion and gait kinematics and its association with severity of planovalgus foot deformity.
BMC Musculoskelet Disord. 2020;21(1):250. (분당서울대병원)

- 30) Incidence of nonunion after surgery of distal femoral fractures using contemporary fixation device: a meta-analysis. Arch Orthop Trauma Surg. 2020;10.1007/s00402-020-03463-x. (서울백병원, 상계백병원)
- 31) Ultrasound Findings Aid Decisions to Repair Partial Articular Supraspinatus Tendon Avulsion. J Ultrasound Med. 2020;10.1002/jum.15307. (은평성모병원)
- 32) Estimation and Comparison of Cortical Thickness Index and Canal-to-Calcar Ratio Using Manual Method and Deep Learning Method.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 Technology 1399-1404(2020) (전북대병원)
- 33) Common Extensor Complex is a Predictor to Determine the Stability in Simple Posterolateral Elbow Dislocation: Analysis of MR Images of Stable Versus Unstable Dislocation. J. Clin. Med. 2020;9(10):3094; https://doi.org/10.3390/jcm9103094 (계명대동산의료원)
- 34) Revision Arthroscopic Bankart Repair: A Systematic Review of Clinical Outcomes. J Clin Med. 2020, 9(11), 3418; https://doi.org/10.3390/jcm9113418 (계명대동산의료원)
- 35) Long-Term Results of Total Hip Arthroplasty in Young Patients With Osteonecrosis After Allogeneic Bone Marrow Transplantation for Hematological Disease: A Multicenter, Propensity-Matched Cohort Study With a Mean 11-Year Follow-Up. The Journal of Arthroplasty. https://doi.org/10.1016/j.arth.2020.09.010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36) Confirmation of Femoral Button Deployment Under Direct Visualization During ACL Reconstruction Is Not Beneficial. Orthopedics. 2020 Sep 1;43(5):270-276. https://doi.org/10.3928/01477447-20200721-01.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 37) Posterior stabilized total knee arthroplasty reproduces natural joint laxity compared to normal in kinematically aligned total knee arthroplasty: a matched pair cadaveric study. Archives of Orthopaedic and Trauma Surgery. https://doi.org/10.1007/s00402-020-03624-y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38) Two different types of postoperative sagittal imbalance after long instrumented fusion to the sacrum for degenerative sagittal imbalance. J Neurosurg Spine. https://doi.org/10.3171/2020.4.SPINE20153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39) Cervical foraminal stenosis causing unilateral diaphragmatic paralysis without neurologic manifestation A case report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Medicine. http://dx.doi.org/10.1097/MD.00000000000021349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40) Spinal Surgery for Parkinson Disease With Camptocormia Propensity Score-Matched Cohort Study With Degenerative Sagittal Imbalance (DSI). Clin Spine Surg. http://dx.doi.org/10.1097/BSD.0000000000000994.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41) How Does Preoperative Central Sensitization Affect Quality of Life Following Total Knee Arthroplasty?. J Arthroplasty. 2020;35(8):2044-2049. doi:10.1016/j.arth.2020.04.004.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 42) Ultrasound Findings Aid Decisions to Repair Partial Articular Supraspinatus Tendon Avulsion. J Ultrasound Med. 2020. doi: 10.1002/jum.15307.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43) Novel Instruments for Percutaneous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for Full Decompression and Dural Management: A Comparative Analysis. BRAIN SCIENCES. 2020 Aug 4;10(8):516. doi: 10.3390/brainsci10080516. (분당바른세상병원, 힘찬병원)
- 44) Postoperative Intravenous Iron Supplementation Does Not Improve Hemoglobin Level and Transfusion Rate Following Staged Bilateral Total Knee Arthroplasty. J Arthroplasty. 2020 Sep;35(9):2444-2450. doi: 10.1016/j.arth.2020.04.086. (제일정형외과병원, 서울대보라매병원)

- 45) National Trends in the Repair of Isolated Superior Labral Tear from Anterior to Posterior in Korea. J Korean Med Sci. 2020 Aug 31;35(34):e285. doi: 10.3346/jkms.2020.35.e285. (한양대학병원)
- 46) A case report of Multiple Symmetric Lipomatosis (MSL) in an East Asian Female. BMC Womens Health. BMC Women's Health. 2020 Sep 14;20(1):200. doi: 10.1186/s12905-020-01055-w.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 47) Incidence & Risk Factors of Postoperative Delirium After Spinal Surgery in Older Patients. Scientific Reports. 2020 Jun 8;10(1):9232. doi: 10.1038/s41598-020-66276-3. (고대안암병원)
- 48) Intra-Articular 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e Injection in Patients with Knee Osteoarthritis. Appl. Sci. 2020, 10(17), 5945; doi: 10.3390/app10175945 (영남대학병원)
- 49) Current and Future of Endoscopic Spine Surgery: What are the Common Procedures we Have Now and What Lies Ahead? World Neurosurg. 2020 Aug;140:642-653. doi: 10.1016/j.wneu.2020.03.111. (나누리강남병원)
- 50) Change in the weight-bearing line ratio of the ankle joint and ankle joint line orientation after knee arthroplasty and high tibial osteotomy in patients with genu varum deformity. International Orthopaedics. 2020 Sep 25. doi: 10.1007/s00264-020-04799-0. (고대안산병원)
- 51) Modified hybrid cementing technique reduces stem tip pain and improves patient's satisfaction after revision total knee arthroplasty. J Orthop Surg Res. 2020 Sep 9;15(1):393. doi: 10.1186/s13018-020-01921-1.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 52) Hip-to-calcaneus alignment differs from hip-to-talus alignment in patients with genu varum deformity. Knee Surg Sports Traumatol Arthrosc. Knee Surg Sports Traumatol Arthrosc. 2020 May 27. doi: 10.1007/s00167-020-06060-y. (고대안산병원)
- 53) Posterior stabilized total knee arthroplasty reproduces natural joint laxity compared to normal in kinematically aligned total knee arthroplasty: a matched pair cadaveric study. Arch Orthop Trauma Surg. 2020 Oct 10. doi: 10.1007/s00402-020-03624-y.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54) The Impact of Epinephrine in the Periarticular Injection Cocktail using Ropivacaine for Total Knee Arthroplasty: A Prospective, Randomized, Double-Blind Comparison Study. J Arthroplasty. 2020 Sep;35(9):2439-2443. doi: 10.1016/j.arth.2020.04.042. (주안나누리병원, 한양대학병원)
- 55) High Pelvic Incidence Is Associated with Disease Progression in Nontraumatic Osteonecrosis of the Femoral Head. Clin Orthop Relat Res. 2020 Aug;478(8):1870-1876. doi: 10.1097/CORR.0000000000001155.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 56) Change in intersegmental foot and ankle motion after a high tibial osteotomy in genu varum patients. J Orthop Res. 2020 Aug 20. doi: 10.1002/jor.2483. (서울대학병원)
- 57)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mnant cells have different potentials for cell differentiation based on their location. Sci Rep. 2020 Feb 20;10(1):3097. doi: 10.1038/s41598-020-60047-w. (한양대학병원)
- 58) Association between mortality risk and the number, location, and sequence of subsequent fractures in the elderly. Osteoporos Int. 2020 Aug 20. doi: 10.1007/s00198-020-05602-x. (분당제생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59) Outcome of Ceramic-on-Ceramic Total Hip Arthroplasty with 4th Generation 36 mm Head Compared to that with 3rd Generation 28 mm Head by Propensity Score Matching. Indian J Orthop 2020. https://dx.doi.org/10.1007/s43465-020-00242-z. (서울대 보라매병원)
- 60) "Reverse miss-a-nail technique" of reconstruction nailing for successful fixation of the ipsilateral femoral neck and shaft fracture. Arch Orthop Trauma Surg. 2020 Oct 10. doi: 10.1007/s00402-020-03620-2. (경북대학교병원)

- 61) Comparison of Outcome of Deltoid Ligament Repair According to Location of Suture Anchors in Rotational Ankle Fracture. *Foot Ankle Int.* 2020 Sep 19;1071100720952053. doi: 10.1177/1071100720952053. (고대구로병원)
- 62) Load imbalances existed as determined by a sensor after conventional gap balancing with a tensiometer in total knee arthroplasty. *Knee Surg Sports Traumatol Arthrosc.* 2020 Sep;28(9):2953-2961. doi: 10.1007/s00167-019-05699-6. (경희대학교병원)
- 63) Initial conservative treatment of osteochondral fracture of the patella following first-time patellar dislocation. *BMC Musculoskelet Disord.* 2020 Sep 17;21(1):617. doi: 10.1186/s12891-020-03641-3.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 64) Reconstruction of large chronic rotator cuff tear can benefit from the bone-tendon composite autograft to restore the native bone-tendon interface. *J Orthop Translat.* 2020 Jan 30;24:175-182. doi: 10.1016/j.jot.2020.01.001. (울산대병원)
- 65) Clinical Outcomes and the Failure Rate of Revision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Were Comparable Between Patients Younger Than 40 Years and Patients Older Than 40 Years: A Minimum 2-Year Follow-Up Study. *Arthroscopy.* 2020 Sep;36(9):2513-2522. doi: 10.1016/j.arthro.2020.06.012. (경희대학교병원)
- 66) Restoration of supraspinatus and infraspinatus deep plane occupation ratios was greater in delaminated tears than in non-delaminated tears after rotator cuff repair. *J Orthop.* 2020 Jan 10;20:32-40. doi: 10.1016/j.jor.2020.01.006. (단국대병원)
- 67) Revision Arthroscopic Bankart Repair: A Systematic Review of Clinical Outcomes. *J Clin Med.* 2020 Oct 25;9(11):E3418. doi: 10.3390/jcm9113418 (계명대동산의료원)
- 68) The Valid Diagnostic Parameters in Bilateral CT Scan to Predict Unstable Syndesmotic Injury with Ankle Fracture *Diagnostics.* 2020, 10(10), 812. doi: 10.3390/diagnostics10100812 (계명대동산의료원)
- 69) Does the Coronoid Always Need to Be Fixed in Terrible Triad Injuries of the Elbow? Mid-Term Postoperative Outcomes Following a Standardized Protocol *J Clin Med.* 2020 Oct 29;9(11):E3500. doi: 10.3390/jcm9113500. (계명대동산의료원)
- 70) Distribution of Peripheral Nerve Injuries in Patients with a History of Shoulder Trauma Referred to a Tertiary Care Electrodiagnostic Laboratory *Diagnostics (Basel).* 2020 Oct 30;10(11):E887. doi:10.3390/diagnostics10110887. (계명대동산의료원)
- 71) Incidence and risk factors of acromial fracture following 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J Shoulder Elbow Surg.* 2020 Jun 9;S1058-2746(20)30378-5. doi: 10.1016/j.jse.2020.04.031. Online ahead of print (계명대동산의료원)
- 72) Rapid Destructive Arthritis Due to Subchondral Insufficiency Fracture of the Shoulder: Clinical Characteristics, Radiographic Appearances, and Outcomes of Treatment *Diagnostics (Basel).* 2020 Oct 30;10(11):E885. doi:10.3390/diagnostics10110885. (계명대동산의료원)
- 73) Why locking plates for the proximal humerus do not fit well *Archives of Orthopaedic and Trauma Surgery* <https://doi.org/10.1007/s00402-020-03676-0>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74) Quantitative assessment of neural elements in a rat model using nerve growth factor after remnant-preserving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a histological and immunofluorescence pilot study *Journal of Orthopaedic Surgery and Research.* <https://doi.org/10.1186/s13018-020-01792-6> (원광대학병원)



관련학회 및 국내학술행사 소식

1. 대한슬관절학회 제12회 연수강좌

- 일정 : 2020년 12월 5일(토) 8시 ~ 18시, 서울드래곤시티호텔 3층 한라홀(6평점)
- 문의 : Tel. 02-2148-9799, E-mail. kks@koreaknee.or.kr

2.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연수강좌

- 일정 : 2020년 12월 6일(일) 9시 ~ 16시 30분, 온라인 진행
- 문의 : Tel. 010-2038-0234, E-mail. kfas1991@naver.com

3. Severance Arthroscopy mini-Symposium: Shoulder-Free talk on the interesting issues

- 일정 : 2020년 12월 9일(수) 오후 7시 ~ 9시, 온라인 진행
- 문의 : 세브란스 관절경 연구회 E-mail. sas1992@daum.net

4. 제21회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심포지엄

- 일정 : 2020년 12월 11일(금) 12시 ~ 15시, 온라인 진행
- 문의 : Tel. 051-240-7774, E-mail. pnutrauma@hanmail.net

5. 제17회 정형외과 기초과학 연수강좌

- 일정 : 2020년 12월 12일(토) 8시 ~ 16시, 온라인 진행
- 문의 : Tel. 02-2258-2838, E-mail. kors2838@gmail.com

6.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 일정 : 2020년 12월 13일(일) 8시 ~ 17시, 온·오프라인 진행
- 문의 : Tel. 02-831-3413

7. 제8회 대한수부외과학회 팔이식연구회 세미나

- 일정 : 2020년 12월 17일(목) 18시, 온라인 진행
- 문의 : Tel. 042-338-2480, E-mail. kssh@handsurgery.or.kr

8. 대한고관절학회 연수강좌

- 일정 : 2020년 12월 18일(금), 메이필드 호텔
- 문의 : E-mail. dmdms13@naver.com

9. 대한견주관절의학회 제18차 연수강좌

- 일정 : 2020년 12월 20일(일) 8시 ~ 18시, 온라인 진행
- 문의 : E-mail. kses1@kses.or.kr

10.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추계학술대회

- 일정 : 2020년 12월 20일(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 문의 : Tel. 02-6455-6549, E-mail. str1orkr@gmail.com

11. Severance Arthroscopy mini-Symposium: Knee-Free talk on the interesting issues

- 일정 : 2020년 12월 23일(월) 오후 7시 ~ 9시, 온라인 진행
- 문의 : 세브란스 관절경 연구회 E-mail. sas1992@daum.net

12. 대한골절학회 제11회 온라인 연수강좌

- 일정 : 2021년 1월 9일(토) 9:00~16:00, 온라인 진행
- 문의 : 사무국 Tel. 031-551-1810, E-mail. fxsociety@kofs.or.kr

13. 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 일정 : 2021년 1월 24일(일), 온라인 진행
- 문의 : 대한척추외과학회 사무국 Tel. 02-831-3413, E-mail. korspine@hanmail.net

*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대한골다공증학회 연수강좌

- 일정 : 2021년 1월 24일(일), 메이필드호텔
- 문의 : 사무국 Tel. 02-777-9896, E-mail. work@koreanosteoporosis.or.kr

15. 대한골대사학회 골대사질환 심화과정

- 일정 : 2021년 1월 30일(토) 9:00~17:00, 서울(세부 장소 추후 공지)
- 문의 : 사무국 Tel. 02-3473-2230, E-mail. ksbmr@ksbmr.org

CONFERENCE

1. Intercollegiate X-ray Conference 일정

년 도	개최 월일	병 원 명	년 도	개최 월일	병 원 명
2021	3월 11일	건국대병원	2021	11월 11일	한일병원
	5월 13일	서울의료원		12월 9일	삼성서울병원
	6월 10일	한국원자력의학원	2022	3월 10일	서울대보라매병원
	7월 8일	순천향대병원		6월 9일	중앙대학교병원
	9월 9일	국립중앙의료원		7월 14일	서울백병원

(매월 둘째 목요일 저녁 6:00) (1, 4, 8, 10월 없음)

- 연락처 : Tel. 02-2072-2367~2368 / E-mail. yoowj@snu.ac.kr

2. Interhospital Orthopaedic Conference (매월 첫째 수요일 18:30) (3, 5, 7, 9, 11월 매년 5회 개최)

년 도	날 짜	횟 수	병 원 명
2021년	3월 3일	제142차	광명성애병원
	5월 12일	제143차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7월 7일	제144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9월 1일	제145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11월 3일	제146차	연세사랑병원
2022년	3월 2일	제147차	세란병원
	5월 4일	제148차	아주대학병원
	7월 6일	제149차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9월 7일	제150차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11월 2일	제151차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 사정상 변경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02-2228-2180~2181 / E-mail. os@yuhs.ac

모집공고

1. 건국대학교 총주병원 임상교수 모집

- 인원 : 각 1명, 고관절, 수부, 척추, 족부족
- 문의 : 의국 Tel. 043-840-8252

2. 경희의료원 임상조교수 및 전임의 모집

- 인원 : 0명, 수부 및 미세수술, 고관절, 슬관절, 척추, 족부 및 족관절
- 문의 : 의국 Tel. 02-958-8348, E-mail. futurespine@gmail.com

3. 성균관대학교 창원삼성병원 전임교수 모집

- 인원 : 1-2명, 상지 질환, 하지 질환, 외상, 소아, 종양
- 문의 : Tel. 010-8901-2494, E-mail. dr-lee331@hanmail.net

4.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임상강사 모집

- 인원 : 0명, 척추 (지도전문의 : 김영훈, 김상일)
- 문의 : 임상조교수 김상일 Tel. 010-6550-9248, E-mail. sang1kim@catholic.ac.kr

5.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임상강사 모집

- 인원 : 0명, 고관절, 슬관절, 척추, 견관절, 수부/족부/미세수술
- 문의 : 정형외과학교실 장문준 Tel. 010-4188-5264, E-mail. mdmb3@hanmail.net

6. 세종스포츠 정형외과 임상강사 모집

- 인원 : 1명 (지도전문의 : 김진수)
- 문의 : 임상강사 김상범 Tel. 010-5622-0631, E-mail. mission1105@naver.com

7. 일산백병원 임상강사 모집

- 인원 : 각 1명, 슬관절, 고관절 및 외상, 족부, 척추
- 문의 : 총무부 Tel. 031-910-7512

8.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전임의 모집

- 인원 : 0명, 고관절
- 문의 : 의국 Tel. 02-440-7497

9. 대구 W병원 전임의 모집

- 인원 : 0명
- 문의 : 오상호 과장 Tel. 010-4532-5246

10. 서울부민병원 전임의 모집

- 인원 : 0명, 관절/척추
- 문의 : Tel. 02-2620-0149, E-mail. khj118@bumin.co.kr

11.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전임의 모집

- 인원 : 2명
- 문의 : 지도교수 김응하 Tel. 010-9085-3378, E-mail. khaki00@schmc.ac.kr

12.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전임의 모집

- 인원 : 2명, 척추 (지도전문의 : 신병준, 이재철, 최성우)
- 문의 : Tel. 010-2270-4459, E-mail. swchoi@schmc.ac.kr

13. 이화여대부속서울병원 전임의 모집

- 인원 : 0명, 견주관절, 슬관절/고관절, 수부
- 문의 : Tel. 010-9470-2863, E-mail. snnov9@gmail.com

14. 인제여대 서울백병원 스포츠메디컬센터 전임의 모집

- 인원 : 2명
- 문의 : 스포츠메디컬센터 Tel. 02-2270-0084, E-mail. nicefella@hanmail.net

15.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전임의 모집

- 인원 : 0명, 슬관절 또는 정형외과 기초연구 (지도전문의 : 최원철)
- 문의 : 의국 Tel. 031-780-5289, E-mail. chaos@chamc.co.kr

16. 티케이 정형외과 전임의 모집

- 인원 : 0명, 슬관절 (지도전문의 : 김태균)
- 문의 : 전임의 최상민 Tel. 010-9477-8524, E-mail. poppopcsm@naver.com

*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동정

ㄹ 축하합니다



- 이태연 회원(현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 개원의 및 정형외과발달전회원) 제11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으로 연임

ㄹ 소개합니다



- 임군일 회원(현 영문학회지편집위원) 2021년도 미국정형외과연구학회(ORS) 펠로우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현 영문학회지편집위원인 임군일 교수가 2021년도 미국정형외과연구학회(ORS) 펠로우로 선정되었다. ORS 펠로우는 3년 간 연구 분야에서 상당한 업적과 리더십을 지닌 시니어 회원에게 수여하는 명예직으로서 학계에서 젊은 연구자들의 롤모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일본 홍콩에서 각 1명씩 3명의 연구자가 선정되었다.

ㄹ 참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박윤수 회원(현 수련교육위원회 위원, 삼성서울병원) 빙모상
- 안택근 회원(고려의대) 본인상
- 황창주 회원(서울아산병원, 前 전산정보위원) 배우자상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 대한정형외과학회 건축기금 모금 관련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회원들의 교육과 연구활동 증진을 위한 회관 건축을 위해 2016년도부터 건축기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모금된 건축기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2018년 2월 13일 세법 개정으로 기존에 특별회비 및 비정액 기부금에 대해서 적용되던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학회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근거로 한 경비 비용처리(손금처리)는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번호	성함	소속	모금 날짜	입금액
1	오진록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1월 25일	10,000원
2	김기택	강동경희대학교병원	11월 30일	100,000원
3	염진섭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2월 1일	20,000원

현재 모금액 : 348,470,000원

기부금 고액 기부자 명단

1. 건축기금(단체)

번호	단체명	소속	기부액
1	서울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서울대학교	50,000,000원
2	연세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연세대학교	50,000,000원
3	한양대학교 정형외과교실	한양대학교	30,000,000원
4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20,000,000원
5	대구파티마병원 정형외과	대구파티마병원	15,000,000원
6	전북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전북대학교	10,500,000원
7	고려대학교 정형외과교실	고려대학교	10,000,000원
8	제일정형외과	제일정형외과병원	10,000,000원
9	한양대학교 정형외과 동문회(한정회)	한양대학교	5,000,000원

2. 건축기금(개인)

번호	성함	소속	기부액
1	박근호 회원	전주고려병원	24,000,000원
2	고용곤 회원	연세사랑병원	10,000,000원
3	김용욱 회원	라파메디앙스정형외과의원	10,000,000원
4	박종호 회원	부산센텀병원	10,000,000원
5	서동원 회원	바른세상병원	10,000,000원
6	신규철 회원	제일정형외과병원	10,000,000원
7	김기택 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7,200,000원

3. 학회지 발전 기금

번호	성함	소속	기부액
1	이춘실 교수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20,000,000원

회의실 대관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대관 안내 드립니다. 회의실이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아래 참고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서를 학회로 송부하여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 메일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관 불가일 안내 (■은 예약 완료일입니다.)

❖ 2020년 12월							❖ 2021년 1월							❖ 2021년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3	4	5	6	7	8	9	7	8	9	10	11	12	13
6	7	8	9	10	11	12	10	11	12	13	14	15	16	14	15	16	17	18	19	20
13	14	15	16	17	18	19	17	18	19	20	21	22	23	21	22	23	24	25	26	27
20	21	22	23	24	25	26	24	25	26	27	28	29	30	28						
27	28	29	30	31			31													

질환별 팸플렛 발간



팸플렛 제작 중단 및 할인 판매 안내

-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질환별 팸플렛 총 29종을 제작하여 회원 여러분께 원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원가 물가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00부당 20,000원(면세가)으로 단가가 인상되오니 회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팸플렛 구매 신청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소식지 안내를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학회 이메일 (ortho@koa.or.kr) 또는 팩스(02-780-276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구매 수량은 종류별 100부 단위로 판매합니다.
- 입금 계좌 정보 : KB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 * 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팸플렛은 50% 할인하여 구입 가능합니다.
(대퇴골두골괴사증, 스포츠 손상, 수부관절염, 청소년기척추측만증, 성장클리닉, 환다리 교정, 근골격계초음파)
- ※ 질환별 팸플렛은 현재 제작된 재고 소진시 판매중단 예정입니다. 팸플렛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간소식

1.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 -상하지 및 척추-

의사의 장애평가는 장애 판정에 결정적 근거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의사는 보상, 배상 또는 복지의 정도를 제어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적절한 장애평가 방법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발점입니다. 적절한 장애평가 방법이라는 것은 장애 종류와 정도를 잘 반영하고,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는 평가자의 시간과 노력으로 일정 수준의 일관성, 신뢰도와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평가의 대상인 장애의 개념에 대한 논란이 상존하고, 정의 및 범주는 사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측정이 어려우며, 장애평가 방법에 대하여서도 평가 규격의 자세한 정도와 평가자의 재량권 정도, 장애평가의 대상에 대한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각 방법에 대한 장, 단점이 있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이 현재의 국가적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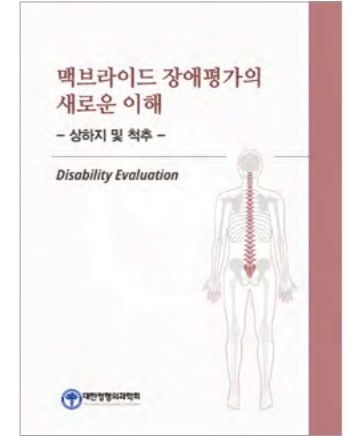
현재 우리가 사용중인 여러 종류의 국내법상 장애평가방법과 생명손해보험회사의 통합 후유장애등급은 100여 년 전의 장애 개념을 차용하여 현재의 의학적 수준과 차이가 있고, 장애분류의 등급 수와 항목들이 단순하고 세밀하지 못하는 등의 단점들이 있으며 그 사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법원에서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법은 오랜 기간 사용되어왔고 여러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여러 단점과 한계 그리고 오류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의하는 새로운 평가방법의 제정은 지난한 일로 새로운 방법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사용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현재에 사용 가능한 적절한 장애평가 방법을 제시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현재 법률적으로 인정되고 사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 평가방법의 원칙과 기준을 유지하면서, 사지 및 척추 분야에 대하여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고 현재의 발전된 의학적 수준에 비추어 새로이 해석하고, 부족한 시행세칙을 자세히 하여 평가자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2년의 기간에 걸쳐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하여 그 내용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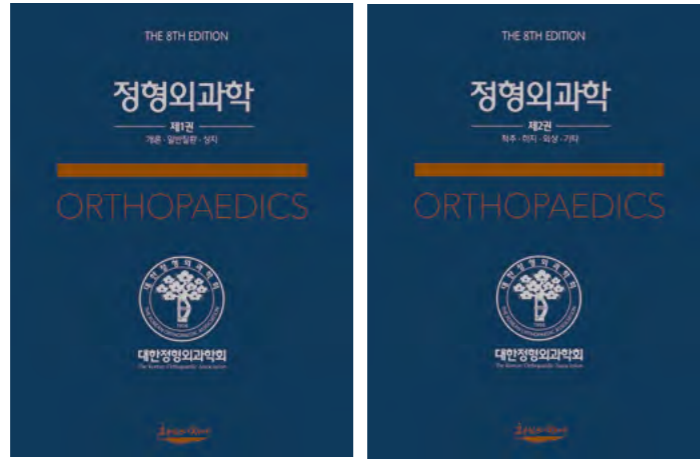
아직도 미비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곳이 있으리라 생각되나, 장애평가 자체가 가지는 본질적 한계가 그 한 원인이며 현재로는 전문가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 최선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에서, 이번 발간물은 2년간의 논의의 결과물입니다. 장애평가를 하시려는 분께서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참작하여 의료 전문가로서 피감정인의 장애 상태를 가장 적절히 평가하는데 적용과 준용의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적절한 장애평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장애평가 개정 TF 위원회, 진단 및 장애위원회 위원장 이 순 혁

- 판매처 : 대한정형외과학회 (Tel. 02-780-2765 E-mail, ortho5@koa.or.kr)
- 가격 : 70,000원 (회원가 3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대한정형외과학회)



2. 제8판 개정판 정형외과학 교과서 발간



- 구입 : 최신의학사(Tel. 02-2263-4723)
- 가격 : 360,000원

제8판은 정형외과학 전문적인 최신 지견을 담고 도표와 증례 또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제7판에 비해 20% 이상 증가된 218페이지로 제8판 정형외과학은 전공의 및 근골격학을 공부하는 의료인들에게 풍성하고 업데이트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제8판 정형외과학 교과서 내용 중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오표를 공지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Page	구조문	신조문
목차 vii	마비된손 4 - 공현식	5 사지마비의 상지 재건술 부분 - 공현식
583	~국한 성~	~국한성~
583	~비후 성반흔~	~비후성 반흔~
583	~진피 섬유종~	~진피섬유종~
584	~침투외상 또는 피지모낭~	~침투 외상 또는 피지 모낭~
584	표피낭종	표피 낭종
584	~배농 하여야 하며~	~배농하여야 하며~
584	~수술 전~	~수술전~
584	양성 섬유 조직구증	양성 섬유성 조직구증
585	~동양인 보다는~	~동양인보다는~
585	~증가시키는 것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585	~섭취로 발생~	~섭취로 발생~

Page	구조문	신조문
585	~다른 피부암으로~	~다른 피부암으로~
586	암 보다	암보다
587	~중년기 에~	~중년기에~
587	~b형 자외선과~	~UVB와~
588	손발톱의 줄무늬모양	손발톱의 줄무늬모양
589	~목표로 치료계획	~목표로 치료계획
590	용 기 성 피 부 섬 유 육 종	용기성 피부섬유육종
709	요골 신경(radial nerve)은 상완 신경통의 후방 코드(medial cord)	요골 신경(radial nerve)은 상완 신경통의 후방 코드 (posterior cord)
712	당뇨성 신경병증에서 수부와 족부 증상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당뇨성 신경병증에서 수부와 족부 증상이 동시에 발생하면,
713	또한 만성 고혈당증을 인슐린 치료로 인한 갑자기 교정하면서	또한 만성 고혈당증을 인슐린 치료로 갑자기 교정하면서
713	삼환계 항우울증약인 amitriptyline이나	삼환계 항우울증제인 amitriptyline이나
715	대상 포진의 발진과 함께 신경이 침범되어 발생하는 것과 연속적이라고 생각되지만, 구분을 위해 발진이 나타나고	대상 포진의 발진과 함께 신경이 침범되어 발생하는 것과 구분을 위해 발진이 나타나고
715	pregabalin을 사용하고, 삼환계 항우울증도 필요할 수 있다.	pregabalin을 사용하고, 삼환계 항우울증제도 필요할 수 있다.
716	이 질환은 손상 후 국소적으로 원위부에 보다 잘 발생하는 다양한 통증의 상태로, 손상에서 예상되는 정도 혹은 기간에 비해 훨씬 심하며,	이 질환은 손상 후 국소적으로 원위부에 더 잘 발생하는 다양한 통증의 상태로, 손상에서 예상되는 정도 혹은 기간에 비해 증상이 훨씬 심하며,
718	표 VI-10. 3) 징후 중 진전(tremor)	진전(tremor)
719	안정성 막 전압을 감소시키고 a1-수용체 저해제인 phenoxybenzamine 등도	안정성 막 전압을 감소시키는 a1-수용체 저해제인 phenoxybenzamine 등도
720	ketamine의 투여 중단 후나 장기간 사용의 효과는 없다고 한다.	Ketamine는 투여 중단 후에 장기간 지속되는 효과는 없다고 한다.
720	관절의 강직이 있거나 구축이 있는 경우 관절해리술 근절제술 등을	관절의 강직이 있거나 구축이 있는 경우 관절해리술, 근절제술 등을
775	이때 피부 결손 범위가 관절 부위인 경우에는 형성된 다량의 반흔으로 인한 관절 구축이 발생하게 되며 관절의 운동의 방해 받을 가능성이 크며, 심하면 변형이 야기될 수 있다.	이때 피부 결손 범위가 관절 부위인 경우에는 형성된 다량의 반흔으로 인한 관절 구축이 발생하게 되며 관절의 운동이 방해 받을 가능성이 크며, 심하면 변형이 야기될 수 있다.
775	피부 결손 범위가 적어 봉합부위에 긴장이 별로남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나 직접 봉합을 무리하게 시행하면, 봉합된 피부가 과잉 긴장되면서 혈류가 차단 되어 봉합한 피부 부위에 과사가 초래될 수도 있으며, 이때는 가능한 빨리 봉합부위를 풀어서 긴장을 없애주어야 과사를 막을 수 있다.	피부 결손 범위가 적어 봉합부위에 긴장이 별로남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봉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접 봉합을 무리하게 시행하면, 봉합된 피부가 과잉 긴장되면서 혈류가 차단 되어 봉합한 피부 부위에 과사가 초래될 수도 있으며, 이때는 가능한 빨리 봉합부위를 풀어서 긴장을 없애주어야 과사를 막을 수 있다.
776	두꺼운 피부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마찰에 잘 견디며 기능도 좋고, 구축되는 비율도 약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두꺼운 피부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마찰에 잘 견디며 기능도 좋고, 구축되는 비율도 약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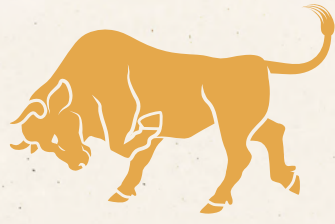
Page	구조문	신조문
778	전층 식피술은 피부가 두꺼우므로 구축은 많지않으므로 미용상 만족도가 높으며 공여부가 봉합되는 경우가 많아 공여부 문제가 적은 장점이 있으나 생존율은 부분층 식피술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전층 식피술은 피부가 두꺼우므로 구축은 많지않고 미용상 만족도가 높으며 공여부가 봉합되는 경우가 많아 공여부 문제가 적은 장점이 있으나 생존율은 부분층 식피술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784	재접합 원위부가 절단 되기 전의 기능으로 가능한 많은 회복 하려면,	재접합 원위부가 절단 되기 전의 기능으로 가능한 많이 회복 하려면,
786	근육이 많이 손목보다 근위부 절단에서는 변연절제술 시 죽은 근육이나 이물질로 인한 문제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근육이 많은 근위부 절단에서는 변연절제술 시 죽은 근육이나 이물질로 인한 문제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788	무지가 손의 기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0~50%로 알려져 있으며 미용상의 외양뿐 아니라 감각 및 운동 등의 복합적 기능을 갖는다.	무지가 손의 기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0~50%로 알려져 있으며 미용상의 외양뿐 아니라 감각 및 운동 등의 복합적 기능을 갖는다
838	비우세(non-doniment)에 더 호발하며	비우세(Non-dominant)에 더 호발하며
838	또한 전신적 질환이 있을 시에도	또한, 전신적 질환이 있을 시에도
838	이 질환의 특징적인 병리 소견이며 이로 인해	이 질환의 특징적인 병리 소견이며, 이로 인해
838	정상 어깨의 관절 용적은 28~25 ml 인 반면,	정상 어깨의 관절 용적은 25~28 ml 인 반면,
839	아직까지 불명확하지만 자연 치유(self-limited) 되는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어	아직까지 불명확하지만 보통 자연 치유(self-limited)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839	이 단계에서 환자는 대부분 관절 가동 범위는	이 단계에서 환자의 대부분 관절 가동 범위는
840	스테로이드주사 치료는 침습적이고,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침습적이고,
841	진단 및 치료 할 수 있다.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다
998	연골육종(Chondrosarcoma), 상피양 육종(Epithelioid sarcoma) 등의 원발성 골육종이 발생하기도 한다.	연골육종(Chondrosarcoma), 상피양 육종(Epithelioid sarcoma) 등의 원발성 골육종이 발생하기도 한다.
1000	피부의 망상 진피(reticular dermis)에 위치하여 체온, 혈압 조절을 돕는 기능을 갖고 있는 신경-근-동맥성 구조(neuromyoatrial apparatus)인 사구소체(Glomus body)의 이상 비대에 의한 양성 종양으로	피부의 망상 진피(reticular dermis)에 위치하여 체온, 혈압 조절을 돕는 기능을 갖고 있는 신경-근-동맥성 구조(neuromyoarterial apparatus)인 사구소체(Glomus body)의 이상 비대에 의한 양성 종양으로
1001	두개 이상의 뼈에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다발성 내연골종증(Multiple Enchondromatosis)이라 하며,	두 개 이상의 뼈에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다발성 내연골종증(Multiple Enchondromatosis)이라 하며,
1002	다발성 병변의 경우 악성화의 빈도가 비교적 높으나, 고립성 병변은 드물고 아직까지 수부에서 악성화 보고는 없다.	다발성 병변의 경우 악성화의 빈도가 비교적 높으나, 고립성 병변에서는 드물고 아직까지 수부에서 악성화 보고는 없다.
1002	이는 지방종 (lipoma), 섬유종 (fibroma), 결절종 (ganglion cyst), 건막 거대세포 종(giant cell tumor of tendon sheath) 등과 감별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지방종 (lipoma), 섬유종 (fibroma), 결절종 (ganglion cyst), 건막 거대세포종(giant cell tumor of tendon sheath) 등과 감별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002	2) 신경초종 (神經鞘腫, schwannoma, neurilemoma)	2) 신경초종 (神經鞘腫, schwannoma, neurilemoma)
1003	병변을 눌렀을 때 압통을 보이거나, 방사통(radiating pain), 이상감각(paresthesia) 등의 티넬 징후(tinel sign)를 보이기도 한다.	병변을 눌렀을 때 압통을 보이거나, 방사통(radiating pain), 이상감각(paresthesia) 등의 티넬 징후(Tinel sign)를 보이기도 한다.

Page	구조문	신조문
1044	이 돌기와 이것에 닿는 상부 추체의 가장자리 사이에서 생긴 섬유 윤의 균열을 구추 관절(鈎椎關節, uncovertebral joint) 또는 Luschka 관절(joint of Luschka)이라 한다(그림 Ⅲ-5).	이 돌기와 이것에 닿는 상부 추체의 가장자리를 연결하는 관절을 구추 관절(鈎椎關節, uncovertebral joint) 또는 Luschka 관절(joint of Luschka)이라 한다(그림 Ⅲ-5).
1044	추 동맥(脊椎動脈, vertebral artery)은 제3 경추부터 제6 경추까지에서 횡 돌기 공(橫突起孔, transverse foramen)으로 주행하나, 제7 경추에서는 횡 돌기 공의 외부로 주행한다.	척추 동맥(脊椎動脈, vertebral artery)은 제1 경추부터 제6 경추까지에서 횡 돌기 공(橫突起孔, transverse foramen)으로 주행하나, 제7 경추에서는 횡 돌기 공의 외부로 주행한다.
1119	흉추 후만각은 제 5흉추 상연-제 12흉추 하연 사이를 측정하고, 요추 전만각은 제 1요추 상연-제1천추 상연 사이를 잰다. 제 1-3흉추는 어깨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 5흉추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흉추 후만각은 제 4흉추 상연-제 12흉추 하연 사이를 측정하고, 요추 전만각은 제 1요추 상연-제1천추 상연 사이를 잰다. 제1-3흉추는 어깨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 4흉추, 또는 제 5흉추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1357	양외위에서 신전된 다리의 ---	양외위에서 신전된 다리의 ---

허위진단서 근절 캠페인 포스터 안내



과잉진료 및 허위진단서 근절 캠페인 포스터가 필요하신 분은 학회 이메일(ortho@koa.or.kr)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A4사이즈)



2021

근 하 신 년

Season's Greetings and Best Wishes for the New Year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힘써주신 선생님,

항상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2021년에도 가정에 편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대원제약을 성원해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대원제약 드림